

백련결사 보현도량의 의미에 관한 고찰

오지연
동국대학교 강사

I. 머리말

II. 보현도량의 개설 취지

1. 시립(始立)의 뜻
2. 백련결사의 방향

III. 보현도량의 내용

1. 법화참(法華懺)의 형식과 내용
2. 구생정토(求生淨土)의 발원
3. 보현도량의 의미

IV. 맺는말

요약문

백련결사와 정혜결사는 한국불교사에서 대표적인 두 결사이다. 정혜결사의 뜻은 간화(看話)의 선맥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계승되어 오고 있지만, 법화예참도량이었던 백련결사의 취지는 오늘날 찾아보기가 힘들다. 원묘의 비문에서는,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로 보현도량을 열어서 널리 선관[禪]과 송경[誦]을 행하도록 권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한다. 백련사의 보현도량은 근본적으로 법화 일불승(一佛乘)의 뜻을 천명하며 그것을 실현하고자 한 도량이었다. 그것을 네 측면으로 말하면, 삼승의 가르침들을 묘법(妙法)으로 회통해내는 교일(敎一), 송경(誦經)과 선정 등의 여러 수행법들이 모두 한결같이 성불도(成佛道)라고 하는 행일(行一), 모든 사람이 신분차이나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모두 부처와 다름없다고 인식하는 인일(人一), 사(事)법과 이(理)법이 둘이 아니라고 깨닫는 이일(理一) 등의 네 가지 일승[四一]을 그대로 실현하고자 한 도량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백련결사, 보현도량, 법화참법, 요세, 천인, 천책, 선관(禪觀), 송경(誦經), 일불승(一佛乘), 네 가지 일승[四一]

I. 머리말

백련결사와 정혜결사는 우리 불교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두 모임이다. 정혜결사는 수선(修禪)에 기반한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주창하였고, 그 전통은 간화선(看話禪)을 주요한 수행법으로 계승해온 현재의 조계종에까지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다고 보인다. 반면, 백련결사는 법화예참도량인 보현도량을 열어 신분의 차별을 넘어선 폭넓은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행해졌으나, 만덕사 제4대 진정국사 천책 이후로 결사의 모습과 영향력이 크게 쇠하여 결국 그 강력한 취지가 우리불교사에 어떻게 계승되어왔는지를 잘 찾아볼 수가 없다. 더구나 백련결사를 개창한 원묘국사 요세(1163-1245)에 관한 자료는 비문(碑文)과 제문(祭文)에 국한되어있어서, 결사의 취지나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파악이 어려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자료에 의지하여 원묘국사의 생애와 백련결사의 내용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다행히도, 백련결사 개창 당시에 만덕사 제2대인 정명국사 천인

(1205-1248)과 제4대인 진정국사 천책(1206-?)은 원묘국사를 도와 함께 결사를 이끌어갔으므로, 그들이 남긴 글들을 통해서 미약하나마 결사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에 의거하여 지금까지 원묘국사의 생애나 백련결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역사적인 측면과 불교학적인 시각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백련결사에서 시행된 보현도량의 내용에 대해서는 천태의 법화참법을 위주로 하고 미타의 염불행이 병행되어 왔으며, 그것은 천태의 지관수행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정도로 조명되어왔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보현도량의 취지와 독자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보현도량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설된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본다.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천태의 교의가 전래되었지만 그것과는 달리 ‘처음 개설되었다[始立]’고 한 뜻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은 보현도량의 내용에 대한 것인데,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보현도량의 법화참법에서 시행된 형식적인 모습에 치중하여 하근기를 위한 쉬운 수행이라고 보는 경향이 많았다. 본고에서는 법화참법에서 표방하는 형식과 그에 내포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을 통하여 송경(誦經)과 선관(禪觀)이 통일된 보현도량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볼 것이다. 그리고 법화참법과 더불어 시행된 정토왕생을 구하는 미타염불행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 염불행은 유심정토(唯心淨土)라는 천태정토사상에 따른 실천법이라는 내용에 대한 연구가 많았는데, 본고에서는 『법화경』 자체에 이미 들어와 있는 미타정토사상을 조명해보면서 백련결사 관련 자료를 통하여 당시에 결사의 지도자들에게 그러한 인식적 기반이 있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

로 백련결사에서 소의(所依)로 했던 『법화경』의 일불승 사상에 근거하여 보현도량과 그 결사대중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하여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연구의 자료로는 원묘의 비문을 비롯하여 천인의 『만덕산백련사제2대정명국사후집(萬德山白蓮社第二代靜明國師後集)』과 『동문선』에 수록된 글들 그리고 천책의 『호산록(湖山錄)』과 『해동진흥록』의 내용 중 현재 『법화영험전』내에 수록되어있는 11편의 글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이 비록 원묘의 저술들은 아니지만, 대부분 원묘국사의 뜻을 받들고 도와서 그 취지와 내용을 전해주는 자료들이기 때문이다. 천책은 「담영암수김랑중서서(答靈岩守金郎中愜書)」의 끝부분에서 그가지은 결사문이나 계송 등은 모두 원묘국사의 자취[聖迹]를 기록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¹⁾ 따라서, 『호산록』에 수록된 글 가운데서도 백련결사와 보현도량의 근본 취지와 내용을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글들을 뽑아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고는 백련사 보현도량의 의미를 최대한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관계로 많은 한계를 갖기도 할 것이다. 요세 입적 이후 제4대 천책에 이르면서 보현도량의 성격도 다분히 변화를 겪게 되는 것에 관한 고찰이나 보현도량의 법화행법 이후에 발견되는 고려 후기의 법화행법²⁾과의 비교 등은 본고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

1) 天頤, 「答靈岩守金郎中愜書」, 『萬德山白蓮社第四代眞靜國師湖山錄卷下』, 『한불전』6, p. 216a, “그러나 지은 결사문과 나머지 계송과 잡문은 단지 성인의 자취를 기록한 것뿐이고, 그 사이에 인용한 부처님과 조사의 묘전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다소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然所著結社文 及餘伽陁雜文 但記聖迹 其間援引佛祖妙典 要須白敘 稍有深旨]”

2) 여기에 대한 연구로는 이 기운, 「고려의 법화삼매 수행법 재조명 : 새로 발견된 법화삼매 수행집을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화지널』 제24호, 2011; 이 기운, 「동북아 삼국의 법화삼매 행법체계 연구」 『동양철학연구』, Vol.70, 2012 등이 있다. 앞 연구에서는 최근에 고

이어서 미처 다 고찰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에 대한 것은 별도의 연구를 기약하기로 한다.

II. 보현도량 개설 취지

1. 시립(始立)의 뜻

원묘의 비문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로 ‘보현도량을 열어서 널리 선관[禪]과 송경[誦]을 행하도록 권한 것’은 원묘국사가 처음이라고 한다. 분명히, 그 이전에 백제의 현광(玄光)을 비롯하여 대각 의천에 이르기까지 천태 교관을 전해 와서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현도량’을 연 적은 없었다고 한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그것은 결코 『법화경』의 내용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방법으로서의 법화참법을 소개한 적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실제로, 신라이래로 고려시대 원묘이전의 시기까지 법화를 강경(講經)하는 모임을 갖거나 예참(禮懺)을 행하였다는 기록은 적지 않다.³⁾

려 우왕4년(1378) 발간된 『법화삼매참조선강의』와 충숙왕 13년(1326)에 발간된 『묘법연화경삼매참법』 3권본 등이 발견됨으로써 고려 후기에 요세의 백련결사에서 행해졌던 법화삼매와는 다른 형태의 법화삼매참법이 행해졌음을 확인해내었다. 더불어서 『법화삼매참조선강의』하권 끝의 발문이 『법화영험전』의 발문과 동일한 것이며, 그 내용으로 볼 때 당시에 이 세 가지 문헌이 백련사계통과는 다른 묘연사 계통 천태종의 법화삼매참법을 홍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3) 대표적인 것으로 신라의 경우는 『입당구법순례행기』의 赤山法華院 관련 기록이나 『삼국유사』의 法華懺 관련 내용, 고려시대에는 『법화영험전』의 기록과 『고려사』권10의 毘佛寺에서 천태종예참법으로 萬日結社를 하였다는 기록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김영미, 「고려전기의 아미타신앙과 천태종 예참법」, 『사학연구』 제55·56 합집호 참조.)

그러므로, 이전의 법화관련 수행도량과는 다른 백련결사의 보현도량을 개설한 뜻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백련사의 제4세로 「백련결사문」을 지었다고 하는 진정국사 천책의 글을 통해서 살펴본다. 먼저, 「운대아감 민호에게 답하는 글[答芸臺亞監閱昊書]」을 보면 이렇게 말한다.

“보현도량을 처음 세우고 개삼현일(開三顯一)의 일불승[佛乘]을 널리 드날리며, 전대(前代)에 행하지 못한 것을 힘써 행하니 후대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한 지가 지금 14년이 되었습니다.”⁴⁾

“반드시 믿음의 힘을 견고히 하고 서원을 크게 드날리면 비로소 제가 짊어질 임무가 있게 되는 것이니, 하물며 지금 영축산에서 개현한 일불승의 가르침을 흥포하니 오직 이 땅과 인연이 있음에랴.”⁵⁾

이 글은 보현도량을 연지 14년, 즉 원묘의 입적 이듬해의 글이므로 백련사 도량의 모습을 그대로 전해준다. 글에 의하면, 보현도량은 앞 세대에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하고 후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해왔으며, 견고한 믿음과 서원으로 일불승의 뜻을 널리 흥포함을 사명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연경법석소(蓮經法席疏)」에서는 그 뜻이 더욱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다.

4) 리 영자 역주, 「答芸臺亞監閱昊書」, 『천책스님의 호산록』, p. 231, “始立普賢道場 弘揚開顯佛乘力行前代之不行 使覺後人之不覺 以今十四年矣.”

5) 리 영자 역주, 앞책, p. 249, “要須信力堅固 誓願魚然 始可有荷擔分 況今所弘靈山 開現佛乘 偏有緣於此土.”

“묘법은 일념의 망심을 말한다. (그것은) 꾸짖는 법문이며 죽이는 법문이라지만 그것이 곧 큰 도[大道]이다. 삼관(三觀)을 다하여 근원을 밝히면, 이치[理]의 도량이 곧 현상[事]의 도량이며 또한 법문이다. 이미 오직 죽이기만 하고 오직 꾸짖기만 한다면 도량이라 말할 수 있는가? ... 이에 21일 동안 참회법회를 일으켜 오늘에 이르렀다. 다행이 만덕산에서 행을 처음 여니, 온 나라가 믿음을 일으킨다. 저 용맹하여 무를 숭상하는 병사는 항상 수지하고, 저 군자로서 충(忠)을 다하는 현인은 부지런히 유포시킨다. 밤낮으로 입과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경계가 관을 비추고 관이 경계를 비추니 불가사의하다. 선(禪)을 행할 때 외우고 외울 때 좌선하니 진실로 방해하거나 막힘이 없습니다.”⁶⁾

글에서는, 보현도량은 ‘오직 죽이거나 오직 꾸짖는 법문’을 펼치는 도량이 아니라고 한다. 흔히, 한 생각의 망심(妄心)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므로 ‘꾸짖는다’고 표현하였으나, 그것이 실제로 묘법(妙法)이며 그것밖에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현도량은 사법(事法)을 하열한 법이라고 폄하하고 상대적으로 이법(理法)만을 숭상하는 곳이 아니다. 그 대신 공·가·중의 삼관(三觀)을 통하여 모습 없음과 모습 있음에 걸리지 않고 모습 있음이 곧 모습 없음과 다르지 않음을 법문으로 삼는다. 삼칠일의 법화참법을 통하여 온 나라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나아가 입으로 경을 외는 것과 마음으로 선관

6) 리 영자 역주, 앞책, pp. 200-202, “妙法謂一念妄心 嗔法門是殺法門是大道 泯三觀明體理道場爲事道場 爲法門 既仍於唯殺唯嗔 道場可云乎……於此三七日立修儀 流至于今幸萬德之啓行 舉三韓而生信 彼熊巖尙勇之士 往往受持 況驚奮奮忠之賢 勤勤流布……晝三夜三 口一心一境照觀觀照境 不可思議 禪時誦誦時禪 固無妨闕 真功已就 慧鑒悉周”

(禪觀)을 행함이 상즉하여 서로 걸림이 없다고 한다.

민인균의 「관고(官誥)」에서도 보현도량의 독자성을 말하였다.

“(이전에도 범화천태의 법이 전해졌으나) 삼승(三乘)을 오직 묘승(妙乘)의 문(門)으로 모으고, 만법을 순수한 원교(圓敎) 위에 녹여내었다. 베풀 공덕이 널리 미치고 음덕과 이익이 실로 많았다.”⁷⁾

이와같이 백련사의 보현도량은 근본적으로 범화 일불승(一佛乘)의 뜻을 천명하고 그대로 구현해내고자 한 도량이었다.

2. 백련결사의 방향

백련결사는 원묘를 따르는 대중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결성되었지만,⁸⁾ 원묘의 백련결사가 결과적으로 당시의 불교 흐름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은 것이었다. 그것은 모두 원묘국사가 밝은 눈으로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보고 굳건한 의지로 적극적인 실천행을 스스로 행함과 동시에 밖으로 널리 권하여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관고(官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7) 閔仁鈞, 「官誥」, 『동문선』 27, “(自唐而返。英純講授於羅朝。至宋亦然。大覺流傳於祖代。有權實而不有。無修悟而不無) 會三乘於獨妙之門。融萬法於純圓之表。功施衍暢。蔭益弘多。”

8) 원묘 비문에서, 최표나 최홍 등이 ‘지금 법을 따르려는 이들이 점점 많이 모여들어 산사가 협소하다’거나, 무자년(1228)에 천인 등이 원묘의 문하에서 출가한 이후 ‘그로부터 여기저기서 높은 소문을 듣고 信行이 있는 이들이 끊임없이 와서 머무르며 점점 큰 모임이 되었다’고 하였고, 그 몇 년 후에 보현도량을 열게 되었기 때문이다.

“불성이 희미해지고 사람들의 근기가 얇고 둔해지자, 도량으로 흘러 머물지 않는 이도 있고, 문구에 막혀서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도 있다. 그리하여, 마른 나무처럼 앉아있는 것을 선(禪)이라 말하면서 삼관(三觀)을 질곡으로 여기고, 큰소리치는 것을 지혜로 삼아서, 팔계(八戒)를 찌꺼기 같이 여겼다. 대사는 이같은 시기에 이러한 폐단을 힘껏 구제하여, 잡초를 베어서 바른 길을 열고, 제방을 쌓아서 마구 흐르는 물을 막았다.”⁹⁾

인용을 보면, 원묘 당시의 불교계 모습은 한마디로 계·정·혜의 삼학이 모두 어그러진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도량으로 흘러 머물지 않는 이도 있음’은 계행(戒行)이 무너진 것이고, ‘나무막대기 같은 선’이란 실상(實相)을 비추어내지도 못하고 다양한 방편도 없는 형식적인 선정을 말한다. 또 경전을 보는 이는 문자에 막혀 올바른 지혜를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것은 남악 혜사이래로 천태의 모든 법문 가운데 항상 경계하는 상황과 일치한다. 즉, 혜사는 항상 계행을 무시하고 선교방편이 없는 선수행자인 ‘암증선사(暗證禪師)’와 문자에 떨어져 바른 행과 지혜가 없는 ‘문자법사(文字法師)’를 늘 경계하였다. 그것은 지의에게로 계승되어 그의 법문에 일관되었으며 나아가 천태 일가의 가풍으로 자리 잡았다. 원묘는 이러한 천태의 가풍을 계승하였으며, 백련결사는 그것을 구현해낸 도량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현도량기시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9) 閔仁鈞, 「官誥」, 『동문선』 27, “及乎佛性埋微。人根淺鈍。有流於溝蕩而不住。有滯於文句而不移。謂枯坐是禪。等三觀於桎梏。以疲號爲慧。齊八戒於糞糠。師於是時。力救此弊。芟蕪穢以開正路。作堤防以障橫流。”

말하고 있다.

“다행히 지금 만덕산의 어르신이 계셔서 사명청규(四明清規)를 사모하여, 물러나고 게으름을 인도하였으니 이것은 곧 정진의 깃발이며, 서원을 엮어서 자비의 뗏목을 만듭니다. 그리하여 이미 전도된 미친 물줄기를 돌려 교관을 일으켜 감로수를 한량없는 곳에 뿌리셨습니다.”¹⁰⁾

즉, 원묘가 쌓은 ‘제방’인 계율은 사명청규(四明清規)를 모델로 삼았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원묘가 사명청규에 준거하여 백련사 대중들의 생활규범을 제시하고 이끌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사명청규’는 어떤 내용인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허홍식교수는 백련사계통에서는 『범망경』을 토대로 계율을 지켰으며 사명청규를 바탕으로 한 천태종의 계율사상에 의거하였다고 말한다.¹¹⁾ 하지만, 사명청규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리영자교수는 이 사명청규를 『사명존자교행록』에 실린 「수보살계의(授菩薩戒儀)」라고 보았다.¹²⁾ 『사명교행록』은 제목 그대로 사명존자의 가르침과 수행교화에 관련된 자료들을 엮은 책이다. 그 가운데 「수보살계의」는 사명지례의 연보를 정리한 다음에 맨 처음으로 실린 글이며, 연경원의 엄불회에 관한 글인 「결엄불회소(結念佛會疏)」의 앞에 게재된 글이다. 즉, 이러한 배열로 보아 「수보살계의」는 사명산(四明山)의 모든 교행(敎行)

10) 리 영자 역주, 앞책, p. 179, “幸今有萬德尊宿 慕四明清規 引退億則是精進之幢 填誓願則作慈悲之筏 廻狂瀾於既倒 教觀以之勃興 洒甘露於無垠”
11) 허 홍식, 『진정국사와 호산록』, 민족사, 1995, pp. 77-78 참조.
12) 리 영자 역주, 앞책, p. 179의 각주 500) 참조.

에 있어서 가장 기본 되는 내용으로서, 엄불회와 같은 큰 모임에 앞서서 만드시 숙지되어야 할 내용이었다고 생각된다. 그 내용은 대략 스승에게 계법 받기를 청함, 삼귀계를 받음, 참회, 갈마수계, 계상(戒相)에 대한 설명, 발사홍서원과 회향으로 이루어져 있다.¹³⁾ 여기서 삼귀계에 이어서 받는 계는 곧 『범망경』의 10중(重)48경계(輕戒)이다. 그 중에 10중계 각각에 대하여 간략히 내용을 말한 다음 ‘그대는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다. 48경계는 일일이 들어 보일 수 없어서 생략한다고 하였다. 수계에 이어서 사홍서원과 회향의식을 통하여 삼보와 일체중생에게 모든 공덕을 회향하리라고 다짐한다. 이것으로 보아 「수보살계의」는 대중의 모임을 열기에 앞서 행하였던 수계의식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⁴⁾ 더구나 위의 인용문에서 사명청규를 사모하여 대중들에게 ‘정진·서원·자비’를 불러일으켰다고 한 내용과 맥락이 일치하고 있다.

「수보살계의」에서 보여지듯이 분명히 사명지례의 천태교단은 『범망경』의 계율을 수지하였으며, 백련결사에서도 그러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천책의 「차운봉답이시중장용입사시(次韻奉答李侍中藏用)¹⁵⁾ 入

13) 「授菩薩戒儀」 『四明尊者敎行錄』(『대정장』46, pp. 858c-862a)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第一求師授法 第二策導勸信 第三請聖證明 第四授三歸依 第五召請聖師 第六白佛乞戒 第七懺悔罪愆 第八問無遮難 第九羯磨授戒 第十略說戒相 第十一發弘誓願 第十二結攝迴向.”
14) 『호산록』권3의 「寶雲祖師讚」에 실린 <전공(錢公: 충의왕 진홍숙의 아들 錢惟治)이 받들어 수계사로 삼음[錢公奉爲戒師]이라는 계승에 “크게 스승을 받들어 보살계를 받으니/ 제자라 칭하며 공손히 성의를 다하였네/ 보살계목의 10중48경계는 아무리 들어도 심증이 없으니[寅奉尊師承戒品 稱爲弟子貢虔誠 木又輕重聞無厭]”라고 하였다.(리영자 역주, 앞책, p. 395) 즉, 사명지례의 스승인 보운의통의 천태교단에서도 스승에게 10중48경계의 보살계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5) 李藏用은 고려 전기의 최대 문벌이었던 仁州李氏의 후예로서 생물연대(1201~1272)로나 출신성분으로 보아 天頤과 相通한다. 그는 최씨 집권이 붕괴된 이후 몽고와의 和議를 주장하면서 김준과 대립되었을 정도로 文臣을 대표하는 실력자였다.(許興植, 『高

社詩)에는 “율회에 나가고 나서 지금 30년이 되도록 항상 초하루와 보름의 15일마다 『범망경』을 읽었다.”¹⁶⁾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천책이 처음 계를 받은 이래로 줄곧 『범망경』의 보살계를 철저히 수지하였으며, 따라서 백련결사에서도 동일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¹⁷⁾

이러한 계행을 기본으로 하는 교관일치(敎觀一致)를 실행함에, 먼저 경전이라는 문자를 매개로 한 유상(有相)의 범화참법과 실상관(實相觀)을 포함하는 4안락행인 무상(無相)의 삼매를 실천행으로 제시하였다. 원묘는 그와 더불어 『삼대부절요(三大部節要)』를 지어 대중들에게 배포하여 후진들에게 도움을 주었다.¹⁸⁾ 실제로, 천책이 임계일(林桂一)에게 보내는 답서[答林正言桂一 并序]에는 ‘본적[本末]의 십중묘(十重妙)를 궁구한 것과 같이 모든 샅된 것을 두루 원만하게 하시라’는 구절과 함께 ‘기쁘게 그대가 손가락으로 찍어 제호의 맛을 보니, 산가(山家)의 절요편(節要篇)을 깊이 공부 하십시오’라고 한 구절이 있다.¹⁹⁾ ‘본적의 십중묘’는 『범화현의』에 설해진 내용이며, ‘제호의 맛을 본다’는 것은 범화의 뜻을 궁구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절요편’은 곧 『삼대부절요』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백련결사에서 『삼대부절

요』를 공부하도록 권한 예가 될 것이다. 이처럼 원묘는 대중들로 하여금 범화일승의 묘지(妙旨)를 깨닫게 하는 데에, 행어나 드넓은 천태의 교문에서 해탈 것을 염려하는 의도에서 『절요』를 지어 공유한 것이다. 이와 같이 원묘의 백련결사는 당시에 계·정·혜가 무너진 불교의 풍토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해내었다 볼 수 있다.

III. 보현도량의 내용

원묘의 「비문」에 의하면, ‘임진년(1232) 여름 4월 8일에 보현도량을 결사하여 범화삼매를 닦고 정토왕생을 구하며 한결같이 『범화삼매참의(天台三昧儀)』에 의지하여 여러 해[長年]동안 범화참(法華懺)을 닦았다’고 한다.²⁰⁾ 이 문구에 의거하여 흔히 보현도량은 근기 낮은 ‘범부’들을 위한 참회와 염불의 ‘쉬운’ 수행법이며,²¹⁾ 그러므로 백련결사는

20) 崔滋, 앞글, “以壬辰夏四月八日 始結普賢道場 修法華三昧 求生淨土 一依天台三昧儀 長年修法華懺”

21) 고 익진은 백련결사의 대상이 ‘막중한 죄를 지어 자력으로는 구제할 길이 없는 범부라는 의식’의 중생으로 규정하고 실천법도 참회와 염불같은 易行을 제시한 것으로 보았다.(「원묘요세의 백련결사와 그 사상적 동기」『불교학보』 15집, 1978) 그 이후 채 상식(『고려후기불교사연구, 일조각, 1991, pp. 26-27)·이 혜옥(「고려 요세의 천태선 연구, 동국대석사논문, 1990)·김 양순(「고려후기 백련결사의 정토사상 연구, 『불교학 연구』 창간호, 2000)·강 호선(「원간섭기 천태종단의 변화 : 충렬·충선왕대 묘연사계를 중심으로, 『보조사상』 16, 2001) 등 여러 학자들이 그에 동의하였다. 반면, 최 동순은 원묘가 철저히 범부의식에 의거하여 대중들에게 易行道를 권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원묘를 ‘서참회’라고 불렀던 것은 그를 조소한 것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보인다.(「원묘요세 연구의 문제점 고찰, 『한국불교학』 제48, 2007) 김 정희는 하근기로서의 범부의식의 개념에 반대하며 ‘근기의 다양성’으로 정정하며, 염불 또한 다양하게 제시한 실천행법의 하나로 자력수행이라는 입장을 취한다.(「원묘국사 요세의 천태정토사상에 대한 소고, 『철학연구』 제69집, 2005)

麗佛敎史研究』, p. 871)

16) 리 영자 역주, 앞책, p. 35, “自赴律會 至今三十年 每當黑白半月餘 梵網經”

17) 『호산록』에는 범망경보살계 외에 8계계를 받았다는 기록도 있다. 「勸誦彌陀經願文」에서는, “매월 큰 재일에는 모두 한곳에 모여 함께 8계계를 받고 함께 경전을誦하고 정토에 회향한다.[約每月大齋日 俱會一處 同受八戒 同誦雄詮 迴向淨土]”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대중들이 송경(誦經)하기 전에 8계계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18) 閔仁鈞, 「官誥」, 『동문선』 27, “撰疏要以頒徒衆”; 崔滋, 「萬德山白蓮社圓妙國師碑銘 并序」, 『東文選』 권117, “嘗自謂一門敎海浩汗學者迷津 乃撮綱要出三大部節要 鏤板流行 後進多賴焉”

19) 리 영자 역주, 앞책, pp. 31-32, “如窮本末十重妙 須使偏邪一切圓 … 喜君染指醜翻味 鑽仰山家節要篇”

지들의 정혜결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결사로 규정되어지곤 한다. 과연 보현도량은 낮은 근기의 사람들을 위하여 쉬운 수행법을 시설한 도량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생각해보기 위하여 보현도량에서 행하였던 법화참법의 방법과 내용, 그리고 구생정토(求生淨土)의 발원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보현도량의 의미를 정리해보도록 한다.

1. 법화참(法華懺)의 방법과 내용

천인의 「스승 원묘국사에 대한 제문[祭先師圓妙國師文]」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금원(金園)에 터를 정하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거느려 자상하게 잘 인도하니, 반행반좌(半行半坐)의 옛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십승(十乘)으로써 수행의 규범을 삼고 삼관(三觀)으로써 정신을 씻어 깊이 삼매(三昧)에 들어가 정밀하게 닦아 날로 새로웠다.”²²⁾

보현도량의 법화참은 「비문」에 의하면 한결같이 『법화삼매참의』에 따랐다고 하고, 여기에서는 『마하지관』에 설해진 ‘반행반좌삼매의 옛 방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한다. ‘옛 방법’이란 곧 지의의 『법화삼매참의』에 설해진 방법이고 또한 혜사가 지도한, 예경과 독송 참회 등을 행

22) 天因, 「祭先師圓妙國師文」, 『동문선』 109, “乃卜金園。于海之濱。率嶺玄侶。善誘循循。半行半坐。舊制是遵。十乘軌行。三觀陶神。深入三昧。精修日親。”

하는 유상행과 실상관인 무상행이 차별 없이 어우러진 방법이다. 그런데 「제문」에서는 특히 ‘십승과 삼관’으로 행하였다고 말하였다. ‘십승과 삼관’은 무상행인 선관(禪觀)의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십승’은 ‘십승관법’으로서, 『마하지관』에서 총론인 4종삼매를 행하는 원돈지관(圓頓止觀)의 구체적인 수행법으로 설해졌다. 십승관법이란, 대상경계를 관(觀)하는 열 가지 방법이다.²³⁾ 지의가 이 열 가지를 ‘승(乘)’이라고 이름붙인 것은 바로 『법화경』의 일불승의 의미로, 각각이 모두 반드시 불도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²⁴⁾ 아울러 이 열 가지 관법은 대소승 경론의 행법을 종합한 것으로 일체의 불교 경론에 공통된 내용이다. 지의는 십승의 관법을 통하여 당시에 자신의 수행법만을 치우치게 고집하는 선사들을 경계하기도 하였다.²⁵⁾ 형계 담연은 이 십승관법에 대하여, 상근기는 첫번째의 관부사의경(觀不思議境)만으로도 지관의 목적을 이룰 수 있지만, 중근기는 제2 기차비심(起慈悲心) 이하 제7 대치조개(對治助開)의 여섯 가지 법을 필요로 하고, 하근기는 10가지 법 전체를 적용하여 비로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십승관법은 모든 근기를 대상으로 하는 천태의 수행지침이다. 따라서, 보현도량의 법화참은 원돈지관의 행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23) 열 가지 방법이란 觀不思議境·起慈悲心·巧安止觀·破法遍·識通塞·道品調適·對治助開·知次位·能安忍·無法愛이다.

24) 『마하지관』권7하, 『대정장』46, p. 100a-b

25) 智顚, 『三觀義』下(『근속장경』99, p. 89a-b), “이 열 가지를 ‘승’이라 함은, 佛道の 뜻을 배우고 좌선하는 무리들에게 대·소승의 경론에서 밝힌 바 道에 들어가는 바른 뜻이 그저 각자가 한 가지 究竟道만을 주장하는 것과는 다름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지금 행해지는 老莊의 가르침과는 다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또, 『법화현의』권8하(『대정장』33, p. 790c)와 『유마경현소』권2(『근속장경』27, pp. 788b-789a)에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설하였다.

행한 법화삼매이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천책의 「법화도량소(法華道場疏)」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다행히 참회의 법석에 참가하여 간절히 서원을 발하며, 금자로 묘법연화경을 서사하여 이미 7개의 두루마리를 마치니 은색계 대성의 감응이로다. 한번 붓을 잡으매 그로 인해 모임이 사망에서 이루어지고 9년 동안 안거가 갖추어지니, 설함과 침묵이 모두 얻어지고 선정과 지혜가 평등하게 지켜지는구나. 나의 방에 들어가 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옷을 입으니, 의식의 본보기는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로다.”²⁶⁾

이 글은 법화참법의 도량에서 『법화경』 서사를 성료(成了)하여 회향하면서, 이러한 도량이 사망에서 일어났으며 9년 동안의 하안거를 지속해오면서 ‘설함과 침묵’ 즉 송경(誦經)과 선관(禪觀)을 조화롭게 행하여 두 가지가 평등함을 말하였다. 나아가서 『법화경』 「법사품」에서 후세의 보살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로 설하였던 여래의 방과 옷과 자리의 법문을 바로 ‘나의 방·나의 자리·나의 옷’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법화도량이 원만히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운대아감 민호에게 답하는 글[答芸臺亞監閔昊書]」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이 어디서든 조금이라도 유통된다면 비록 사람들이 모두 설법대로 수행할 수 없더라도 반드시 가피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 하

26) 리 영자 역주, 앞책, p. 195, “幸參懺席 切發願輪 金字書妙法之莊嚴 已周七軸 銀色界大聖之感應 庶格一毫 因鳩達親於四方 用辦安居於九夏 說默皆得 定慧等持 入我室 坐我座 著我衣 儀範皆遵乎佛誠”

물며 삼관(三觀)으로 마음을 닦고 오회(五悔)²⁷⁾로 도와서 내외로 수행 정진하는 이를 보지 못하겠습니까.”²⁸⁾라고 말하였다. 여기에서도 역시 안으로의 삼관과 밖으로의 참법 수행을 상호보완적으로 행하는 정진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영암군수 호부낭중 김서에게 답하는 글[答靈岩守金郎中愜書]」에는 송경(誦經)의 방법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뜻을 이어서 함에 든 『법화경』 한 짚을 보냈습니다. …… 오직 날마다 읽으시고, 읽고 나면 외우시고, 외우고 나면 마음에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경에서 말한 모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일대사인연이란 다른 법이 아닌 눈앞에 나타나는 찰나의 일념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²⁹⁾

이것은 법화참법의 중요한 요소인 송경의 방법을 말한 것으로, 경전을 읽고 외우는 과정을 거쳐서 마음에 지니면 결국 부처님의 일대사인연이 다름 아닌 현전의 일념(一念)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현도량에서 가르친 송경법은 현재의 한 생각의 실상(實相)을 깨우치는 관심(觀心)법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7) 五悔는 참회·권청·수회·회향·발원의 다섯 가지로서 법화참법의 10가지 실천 수행법 중 제6참회 부분에 설해진 내용이다. 즉, 여기서 ‘오회’는 유상행(有相行)으로서의 법화참법을 말한다.

28) 리 영자 역주, 앞책, p. 248, “況此金口一音之教 在在處處 第有小許流通 則雖能弘之人 未能如說脩行 必有諸天加護 何況三觀研其心 五悔助其道 內外能脩精進者 不見”

29) 리 영자 역주, 앞책, p. 294, “承諭具匣蓮經一部付囑 …… 惟冀日日常讀 讀已能誦 誦已能持 則經中所謂諸佛出世一大事因緣 非是他法 不出現前剎那一念”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보현도량은 하근기만을 위해 제시한 간략한 수행이라기보다는, 천태의 체계적인 수행지침에 의거하여 상중하의 모든 근기를 거두었으며, 참회나 송경(誦經) 등의 형식에 의거한 수행과 형식을 넘어서 선관(禪觀)이 차별 없음을 깨닫게 하는 원융한 실천의 도량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구생정토(求生淨土)의 발원

보현도량이 하근기를 위한 수행도량이라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로 구생정토(求生淨土)의 발원을 든다. 분명히, 미타정토의 왕생을 발원하는 것은 근기가 낮은 사람도 쉽게 동참할 수 있는 행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을 하근기를 위한 수행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남악혜사나 천태 지의도 모두 신실한 미타행자였으며, 남북조시대 뿐 아니라 후대에 이르기까지 강사(講師)나 선사(禪師)를 막론하고 주요한 실천법에 정토의 수행을 접목하여 행한 사례는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³⁰⁾ 따라서 정토행과 하근기를 직결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제까지 보현도량의 미타염불에 대하여 『관무량수경』의 ‘이 마음으로 부처를 짓고,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다[是心作佛 是心是佛]’라는 문구에 근거한 유심정토(唯心淨土)사상으로서 천태정토사상을 계승한 것이라는 논의는 많이 되어왔다.

30) 安藤俊雄, 「天台智顛의淨土教」, 『天台思想史』(法藏館, 昭和34), pp. 352-369 참조.

지금은 보현도량의 소의경전인 『법화경』과 정토왕생발원의 관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의의 『법화삼매참의』의 정수행(正修行)에서 ‘참회’부분 마지막의 ‘발원’에서는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있다. 이것은 지의의 법화참법에 이미 구생정토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었다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혜사의 가르침이기도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³¹⁾ 이러한 경향의 근거는 사실상 『법화경』 내용 중에도 이미 들어 있다.³²⁾ 다음의 자료들을 통하여 원묘나 천인, 천책이 『법화경』과 미타정토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먼저, 천인의 『만덕산 백련사 제2대 정명국사후집』에 실린 「미타찬계」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읊고 있다.

아미타불이 전생에 왕자일 적에
법화를 복강(覆講)하고는 빨리 성불하시니
금세에 법화와 인연 맺은 이는
저 곳에 태어나 친히 설하시는 묘한 법문 직접 들으리.³³⁾

이것은 『법화경』 「화성유품」 제7의 내용에 근거한다. 경에서는 오랜

31) 『법화삼매참의』는 천태의 초기 저술이므로 대소산에서 혜사에게서 받은 법화삼매참이 다분히 반영되었을 것으로 본다. 혜사는 법화삼매와 더불어 반주삼매도 행하였으므로 ‘미타칭님’수행을 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것은 『반주삼매경』에 근거한 ‘佛立삼매의 觀佛이다. 하지만, 그의 『입서원문』에서는 『관무량수경』에 입각한 강력한 정토사상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혜사의 정토사상이 지의에게 그대로 전해졌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32) 『법화경』과 淨土에 관한 내용은 橫超慧日 編著, 『法華思想』(平樂寺書店, 1980), pp. 466-469와 pp. 16-22를 참조.

33) 天因撰, 『萬德山白蓮社第二代靜明國師後集』, 『한불전』6, p. 195c, “彌陀昔爲王子時 覆講法華疾成佛 今世結緣法華者 生彼親聞轉最妙”; 리 영자 역주, 앞책, p. 321 참조.

과거에 대동지승불의 16왕자들이 『법화경』을 읽고 강의하며 오랫동안 수행하여 동서남북 등 8방의 부처가 되었다고 한다. 그 중 한 분이 서방의 아미타불이다. 다시 말하면, 아미타불도 과거 오랜 세월동안 법화경을 수행한 결과라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천인은 그와 같이 『법화경』과 인연을 맺으면 아미타불국에 태어난다고 한 것이다.

또, 천인의 「법화수품별찬(法華隨品別讚)」 중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의 첫 구절에서는 「서방의(관음)보살 명을 받고 와서[西方大士受命來]」라고 하였다. 즉, 관세음보살은 서방 정토로부터 아미타불의 명을 받고 왔다고 말한 것이다. 그것은 『관무량수경』에서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의 좌협시보살임에 근거한 것으로,³⁴⁾ 일체의 고난을 구해주는 관음의 자비도 아미타불 원력의 구현으로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³⁵⁾

천축의 경우도 「아미타경 읽기를 권하는 발원문[勸頌彌陀願文]」에서 「비록(법화경) 일곱 권의 글이 모두 정토를 예찬하지만, 오직 소본 『아미타경』만이 최고의 강요가 된다.³⁶⁾」고 하여, 『법화경』 전반에서도 정토를 말하고 있지만, 『아미타경』에 그 요체가 잘 설해져 있다고 이해하였다.

34) 『관무량수경』의 16관법 중에 관음보살과 관련된 것이 두 가지 있다. ㉔像想觀에서는 아미타불과 그 좌우에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있는 모습 등 정토의 장엄을 관하며, ㉕觀音觀에서는 아미타불을 왼쪽에서 모시는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觀한다. 이렇게 왕생의 방법인 16관법 가운데 관음관법이 있다는 것은 觀音觀 또한 왕생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 설해졌음을 알 수 있다.

35) 이것은 법화의 주요한 신앙 중의 하나인 관음신앙과 미타신앙의 융합과 일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이다. 백련결사의 보현도량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음신앙의 모습을 잘 찾아볼 수 없으나, 요원의 『법화영험전』을 보면 중국과 우리나라의 법화영험 가운데 관음과 정토왕생에 대한 내용이 많다. 그러므로 관음신앙과 미타신앙의 상호교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36) 리 영자 역주, 앞책, p. 284, “雖藏中七軸 偏讚淨土 唯小本彌陀經 最爲綱要.”

실제로, 『법화경』에는 곳곳에 정토와 관련된 내용이 설해져있다. 위에서 말한 「화성유품」외에도, 「약왕보살본사품」제23에는 여인이 후오백세에 이 경을 듣고 설한 바대로 수행하여 목숨이 다하면 안락세계인 아미타불의 처소에 난다고 하거나, 「오백제사수기품」제8에서는 「아미타불」이나 「정토」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부루나에게 수기를 하며 그가 성불하여 이루는 국토에는 「악도가 없으며 여인이 없다」는 등으로 정토를 묘사하는 내용이 있다. 또 「약왕보살본사품」의 서두에 일월정명덕여래의 나라에는 「여인·지옥·아귀·축생 등 온갖 고난이 없으며 보배 나무와 온갖 장식 등이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법화경』이 성립할 당시부터 정토계통의 그룹을 포용하며 서로 융화해왔다는 증거로 보인다.³⁷⁾ 『법화경』을 수없이 읽고 외워 마음에 지녔던 보현도량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묘는, 「비문」에 의하면, 한편으로는 「삼생동안 법화를 수행해온 분 [三生持法華師]」으로 여겨지며, 한편으로는 매일 빠짐없이 아미타불을 1만 번 외는 모습을 보였다. 사명지례의 염불결사(念佛結社)에서도 매일 1천 번 아미타불의 명호를 불렀다는 것³⁸⁾과 비교하면, 일과와 다른 수행과 병행하여 아미타불 명호를 1만 번 불렀다는 것은 여간한 정성이 아니다. 이것은 법화와의 인연이 여러 생에 걸친 것이었다고 한

37) 이러한 경향은 중국불교에 크게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법화수행자가 정토왕생의 발원을 할 뿐 아니라, 역으로 미타신앙자들 또한 법화참을 행하면서 극락왕생을 발원하기도 하였다. 김 영미의 앞 논문(p. 102)에 의하면, 중국의 미타신앙자들이 「六時禮懺 法華懺 觀音懺 各 2회, 方等懺 4회」를 행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법화참법 뿐 아니라 방등참법을 행하면서도 궁극에는 극락왕생을 발원한 것이다. 그리고 위에 언급된 관음참이나 방등참도 모두 천태종에서 항상 행하던 참법들임을 알 수 있다.

38) 「結念佛會疏」, 『四明尊者教行錄』, 『대정장』46, p. 862b, “每日稱念佛名一千聲”

만큼 미타와의 인연 또한 짧은 것이 아님을 뜻한다. 천책은 「보현도량 기사소」에서 ‘아미타불의 정토를 기약함은 비단 오늘 뿐아니라 (오랜 과거의) 다보여래 시절 또한 그러하였다[期彌陀淨刹 非但今日 蓋亦多寶]’라고 하며, 왕생의 발원은 과거불 시절부터 공통된 것이라고 한다. 이 표현으로 미루어, 원묘국사는 대중들에게 『법화경』에서 다보여래가 석가여래의 설법이 과거부터 일관되며 진실한 것임을 증명하듯 아미타불의 원력 또한 마찬가지로 ‘다보여래 시절부터 그러하였다’고 설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³⁹⁾

그리고, 천인의 「미타찬게」에서는, ‘미타의 서방정토 또한 우리 몸과 마음을 떠난 것이 아니어서 만일 마음 밖에서 따로 구한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며, 마음이 깨끗하면 곧 불국토가 깨끗하고 한 생각을 움직이면 바로 정토⁴⁰⁾’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법화의 묘법이 일념망심(一念妄心)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미타의 정토 또한 일념심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이처럼 보현도량에서는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며 법화의 깊은 뜻을 이해함과 더불어 정토왕생을 발원함으로써, 법화참법과 미타염불이 둘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법화의 큰 뜻과 미타의 원력이 서로 모순됨이 없음을 보여주는 도량이었다고 할 수 있다.

39) 「화성유품」에서 아미타불이나 석가여래가 모두 대통지승불의 16왕자에 포함되며 동일하게 법화 수행을 통하여 오랜 세월 후에 부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설명이 무리가 없게 된다.

40) 천인, 「미타찬게」『萬德山白蓮社第二代靜明國師後集』, 『한불전』6, p. 195c, “是則不離我身心 心外別求甚顛倒 … 信知心淨佛土淨 動念即是生淨土”

3. 보현도량의 의미

지금까지 백련결사에서 행해진 법화참법의 내용과 미타염불행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백련결사는 거의 같은 시기에 먼저 일어난 보조지눌(1158-1210)의 정혜결사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향을 달리 한다. 그것은 원묘가 일찍부터 천태종에 뜻을 두었으며, 지눌과 함께 지냈던 공산(公山)에서도 밤낮으로 참회를 행하였고,⁴¹⁾ 결정적으로는 천태묘해(天台妙解)에 의하지 않고서는 영명연수(904-975)의 120가지 병을 벗어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은 이래로 더욱 적극적으로 법화삼매를 비롯한 갖가지 수행과 교화를 해 온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정혜결사와는 다른 백련결사의 특징을 보여주는 보현도량의 의미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현도량은 『법화경』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현도량의 근거인 「보현권발품」이나 「안락행품」의 공통점은 후오백세의 오탁악세(五濁惡世)에 정법(正法 혹은 『법화경』)을 호지(護持)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즉, 『법화경』에서는 후오백세의 상법(像法) 혹은 말법(末法)시대⁴²⁾에 다른 존재에게 매달려 구원을 청하는 것[他力信仰]이 아니라,⁴³⁾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라는 깊은 바른

41) 「관고」, 『동문선』 27, “暮息影於公山 晝儼夜儼”

42) ‘후오백세’란 여래 입멸 후 오백년이라는 의미로 ‘像法’시대의 시작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법화경』 결집이후 오백년으로 본다면 ‘말법시대’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43) 「관세음보살보문품」에 설해진 관세음보살 청명으로서 온갖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관음신앙은 타력신앙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관음현의』와 같은 주석서를 보면 그 역시 관음을 부르는 자와 불리는 대상인 관음 그리고 부르는 행위 자체가 서로 다르지 않음을 공·가·중의 三觀으로 살피도록 함으로써, 自他不二의 실천행으로 해석하

믿음을 일으켜 적극적으로 법을 수호할 것을 설하며, 그 구체적인 모델로서 여러 보살들의 실천상을 보여준다.

혜사의 경우는 중국불교사에서 말법시대에 대한 의식을 최초로 표출한 인물이며, 그는 오히려 말법시대의 중생으로서 현생 뿐아니라 미래세에도 정법을 수호하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서원을 세웠다.⁴⁴⁾ 그리고 그의 법화삼매행 또한 모든 대중에게 법화 일승의 묘지(妙旨)를 단박에 깨치게 하는[頓覺] ‘최고의 대승행[大摩訶衍]’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이처럼 천태에서는 일견(一見) 타력신앙으로 비취질 수 있었던 예참법의 수행을 ‘대승돈각’이라는 자력과 타력의 불이(不二)행으로 승화시켰다. 지눌의 『정혜결사문』에서는 ‘예토(穢土)와 정토(淨土)를 말하거나, 상법과 말법 등이 있다고 하는 경전은 불요의 경(不了義經)이다’라고 하고 ‘말법과 정법의 차이를 말하면서 비겁하거나 나약해져선 안된다’고 경계하고 있다.⁴⁵⁾ 하지만, 법화 혹은 천태에 있어서는 말법의식을 가지면 나약해져서 타력신앙에 의지하게 되는 그런 염려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말법을 맞이하면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4안락행에 머물러서 정법을 호지(護持)해 나가며, 그런 이의 곁에는 항상 보현보살이 그를 호념(護念)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보현보살의 서원이며 다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 있다. 그 밖에 『법화경』 전반에서는 경전을 수지독송하면서 한결같이 실천해가는 자력수행의 보살상을 설하고 있다.

44) 줄고, 『남악사대선사입서원문(南嶽思大禪師立誓願文)』, 『불교원전연구』 제11호, 2008 참조.

45) 지눌, 『정혜결사문』, 『한불전』4, p. 698b-c, “不說有佛 無佛世界 不說有像法末法 如是時分 常是佛興 常是正法 此乃了義經 但說(第二張)有此方穢土 別方淨土 有佛無佛處所 及像法末法 皆爲不了義經...”; 김 정희, 앞 논문, pp. 9-10 참조.

천인은 『법화수품찬』의 「보현보살권발품」 제28의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들이 법을 듣고 훈습될 수 있는 것은 다(보현)보살의 위신력 때문임을 믿고 알아야 하네⁴⁶⁾’라고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보현도량은 이러한 『법화경』의 취지와 보현보살의 원력을 근거로 한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실천행이었다.

둘째, 결사에 동참한 대중이 폭넓었다는 점이다. 원묘 「비문」에 의하면, 왕실과 조정의 주요 인사들과 지방 고을의 수령들처럼 신분이 높고 낮은 사부대중으로서 이름을 올려 결사에 동참한 이들이 300여 명이고, 서로 전하여 가르쳐서 경전의 한 구절이나 계송을 듣고 인연 맺은 이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고 한다.⁴⁷⁾ 또 「관고」에서는, ‘조정의 벼슬아치들이 이름을 써서 우의를 맺을 뿐 아니라, 소치는 아이와 말 또는 더벅머리까지도 고개를 우러러 바라보며 마음으로 귀의하였다⁴⁸⁾’고 한다. 이처럼 왕실로부터 문무관들을 거쳐 소치는 아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대중들을 교화한 것은 우리 불교사에서 원효이래로 보기 드문 현상이었을 것이다.

허홍식교수는 이와 관련해서, 정혜결사에는 무신난으로 몰락한 개경문벌의 후예들이 주축이 되었으며 백련사에는 몽고의 침입 등 전란을 피해온 개경의 민중을 주된 신도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혜결사의 대중이 지적수준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⁴⁹⁾ 백련결사에 다양한 대중이 동참했던 것

46) 천인, 『법화수품찬』, 『한불전』6, p. 199b, “信知我等獲聞熏 皆是大士威神力”

47) 줄자, 앞글 참조.

48) 閔仁鈞, 『官誥』, 『동문선』27, “非惟鸞序鸞行 題名結社 雖至牛童馬駟 引領歸心”

49) 허 홍식, 앞책, pp. 93-94 참조.

은 분명 시대적 상황의 영향도 작용했겠지만, 사상적으로는 법화일승의 취지에 기인한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보현도량기시소」에서는 ‘누구나 손가락으로 제호를 맞볼 수 있는데, 어찌 모두 마음으로 생소와 낙미에서 그런대로 만족함에 그치겠습니까? 항하사수 같은 중생들로 하여금 성불하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방편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라거나, ‘무릇 한 구절이라도 듣는 이는 오히려 보리의 수기를 받는데, 하물며 삼매를 닦는다면 찰나에 몰록 성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이것은 『법화경』의 ‘일체중생 실개성불(一切衆生 悉皆成佛)’이라는 뜻을 말한 것이다. 부처님은 오로지 모든 중생을 부처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갖가지 방편을 펴신다. 그러므로 중생들의 아주 작은 선행(善行)도 모두 성불에 이르는 길[成佛道]이 되며(「방편품」), 또 상불경보살은 남녀노소 누구에게 늘 예배 공경하는 것이다(「상불경보살품」). 이처럼 『법화경』에서는 모든 존재를 절대적으로 긍정하며, 해사는 그것을 ‘묘법’의 ‘묘(妙)’는 곧 ‘중생 자체의 묘함[衆生妙]’라고 하며 십여시(十如是)로 설명하면서 ‘부처와 범부가 일체를 갖추고 있음을 본말구경등(本末究竟等)이라 한다’고 하였다. 지의는 더욱 확장하여 일념삼천(一念三千)으로 설명하였다.

천책의 「답운대아감민호서」에서는 답연의 『금강비』를 인용하며, ‘아미지옥의 의보와 정보는 모두가 지극한 부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고, 비로자나불의 몸과 국토는 하근기 범부의 일념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직 원돈을 행하는 이라야 초심에서 중생은 부처와 들

이 아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였다.⁵⁰⁾ 천인의 「법화수품찬」제12 제바달다품의 마지막 계송에는 ‘남녀와 귀천의 본체는 정해진 것 없거늘/ 형상을 분별하여 더욱 어리석어 진다네’라고 하였다.⁵¹⁾ 이처럼 아미지옥의 악업 중생도 부처의 마음속에 있으며 부처 또한 하근기 범부의 일념을 벗어나지 않으며, 남녀나 귀천의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⁵²⁾

이렇게 보현도량에서의 중생이란 누구나 그대로 제호의 맛을 볼 수 있는 평등한 존재로서, 예불·참회·경전 독송·실상관 그리고 염불에 이르기까지의 크고 작은 실천행이 모두 행자(行者) 각각에게 그대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도록 이끌었던 것이다. 왕실과 높은 관리로부터 목동까지 모든 계층의 대중을 아우를 수 있었던 보현도량은 바로 이러한 뜻에 기초하여 가능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백련결사의 보현도량의 의미를 『법화경』의 근본 취지에 입각하여 재조명해보았다.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본다.

첫째, 보현도량은 당시 무너졌던 계·정·혜의 기틀을 일으켜 세운

50) 리영자 역주, 앞책, p. 253, “故云阿鼻依正 全處極聖之自心 毗盧身土 不逾下凡之一念 …… 唯圓頓行人 初心能信與佛不二”

51) 천인, 「법화수품찬」, 『한불전』6, p. 197b, “男女貴賤體無定 分別形相轉爲癡”

52) 천책이 천태의 일념삼천설에 근거하여 ‘악업 중생’이나 ‘하근기’에 대하여 이렇게 인식한 것이나 천인의 중생에 대한 언급 등으로 보면,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졌던 백련결사에서 보여지는 ‘범부의식’이나 ‘하근기의 중생’이라는 개념은 분명히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모임이었다. 그 중에서 특히 계행(戒行)의 중시는 자연스럽게 ‘참회’를 강조하는 모습으로 표출되었다고 보인다. 그것이 정혜쌍수를 표방한 보조지눌의 수선사(修禪社)와 결정적인 차이점이기도 하다. 또한 그것은 천태의 4종삼매의 대부분이 참법으로 이루어진 이유와도 상통한다. 천태에서는 지계(持戒)를 일체 수행의 시작으로 삼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수행 가운데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는 ‘참회’가 포함되는 것이다. 참회의 내용은 몸과 입으로 지은 죄나 허물 뿐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어리석음도 포함한다. 따라서 아직 진리를 깨치지 못한 모든 이들은 참회할 내용이 있게 되므로, 천태에서의 참회는 결코 ‘하근기’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법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모는 결사를 열기 오래전부터 밤낮으로 참회를 쉬지 않았고, 사명청규와 같은 보살계의 기틀을 늘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둘째, 보현도량에서는 철저하게 참회나 송경(誦經)과 더불어 지관(止觀)의 실천법인 실상관(實相觀)이 항상 강조되어왔다는 점이다. 그 또한 모든 근기의 대상을 아우를 수 있는 십승관법과 삼관에 의거하여 행해졌다. 그리고 송경의 수행을 가르칠 때에도 마음을 살핌에 이르도록 지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법화참법과 병행되었던 미타염불과 정토왕생의 발원 등은 『법화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근거로 한 법화와 미타의 불이(不二)사상에서 나온 것이며, 결국 법화의 묘법과 미타의 정토는 모두 우리의 지금 한 생각인 일념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넷째, 보현도량은 참회나 예불, 염불 등의 행법으로 인하여 자칫 타력신앙의 도량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소의로 하는 『법화경』에서는 정법수호의 결연한 의지로 수행하는 보살행을 강조하였으며 보현도량은

그것을 그대로 구현해내고자 한 도량이었던 것이다. ‘보현’이라는 의미는 정법수호자와 그의 쉼 없는 실천을 상징하는 것이다.

다섯째, 결사 대중이 다양했다는 것도 『법화경』의 ‘일체중생 실개성 불’사상이나 천태의 일념삼천설이 보현도량에 구현된 모습이었다는 점이다. 남녀귀천을 떠나서 모두가 다 부처의 몸과 마음과 다름없는 존재로 보았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보현도량이 지향했던 일불승(一佛乘)의 뜻을 천태의 사일(四一)로 정리해 본다면, 여러 다른 가르침들을 묘(妙)의 한 법으로 회통하는 교일(教一), 여러 가지 수행법 특히 송경과 선정행이 모두 한결같음을 보여주는 행일(行一), 온 나라의 모든 사람이 신분이나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모두 부처를 이루게 하는 인일(人一), 사범과 이법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일(理一) 등의 네 가지 일승[四一]을 그대로 실현하고자 한 도량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보현도량의 이러한 전통은 이미 오랜 과거가 되어버렸지만, 무너진 계행을 일으켜 세우고, 서로 다른 수행의 방법도 모두 한 가지의 성불도로 키워내며, 출가와 재가가 각자가 처한 곳에서 한 가지 뜻으로써 서로 하나 되었던 가풍은 오늘날 우리 불교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마라집 역, 『묘법연화경』, 『대정장』9
- 智顓, 『마하지관』, 『대정장』46
- 智顓, 『법화현의』, 『대정장』33
- 智顓, 『유마경현소』, 『근속장경』27
- 智顓, 『三觀義』, 『근속장경』99
- 宗曉, 『四明尊者教行錄』, 『대정장』46
- 崔滋, 「萬德山白蓮社圓妙國師碑銘 并序」, 『東文選』117
- 天頊, 『萬德山白蓮社第四代眞靜國師湖山錄』, 『한불전』6
- 天頊, 『萬德山白蓮社第四代眞靜國師湖山錄(二卷·殘卷)』, 『한불전』12
- 閔仁鈞, 「官誥」, 『東文選』27
- 天因, 「祭先師圓妙國師文」, 『東文選』109
- 天因, 『萬德山白蓮社第二代靜明國師後集』, 『한불전』6
- 普照 知訥, 『定慧結社文』, 『한불전』4
- 李永子, 『韓國天台思想의 展開』, 민족사, 1988
- 리영자 역주, 『친척스님의 호산록』, 해조음, 2009
- 허흥식, 『진정국사와 호산록』, 민족사, 1995
- 許興植, 『高麗佛敎史研究』, 일조각, 1986
- 安藤俊雄, 「天台智顓の淨土敎」, 『天台思想史』, 法藏館, 昭和34
- 横超慧日 編著, 『法華思想』, 平樂寺書店, 1980
- 고 익진, 「원묘요세의 백련결사와 그 사상적 동기」 『불교학보』 15집, 1978
- 강 호선, 「원간섭기 천태종단의 변화 : 충렬·충선왕대 묘연사계를 중심으로」, 『보조사상』16, 2001
- 김 양순, 「고려후기 백련결사의 정토사상 연구」, 『불교학연구』 창간호, 2000
- 김 영미, 「고려전기의 아미타신앙과 천태종 예참법」, 『사학연구』 제55·56 합집호, 1998
- 김 정희, 「원묘국사 요세의 천태정토사상에 대한 소고」, 『철학연구』 제69집, 2005
- 오 지연, 『남악사대선사입서원문』, 『불교원전연구』 제11호, 2008
- 이 기운, 「고려의 법화삼매 수행법 재조명 : 새로 발견된 법화삼매 수행집을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지널』 제24호, 2011
- 이 기운, 「동북아 삼국의 법화삼매 행법체계 연구」, 『동양철학연구』, Vol.70, 2012
- 이 혜옥, 「고려요세의 천태선 연구」, 동국대학교석사논문, 1990
- 채 상식, 『고려후기불교사연구』, 일조각, 1991
- 최 동순, 「원묘요세 연구의 문제점 고찰」, 『한국불교학』 제48, 2007
- 만덕산 백련사, 제1차 학술세미나 자료집 『원묘국사 요세와 백련결사운동』, 2011

A study on meaning of the practicing site of Samantabhadra(普賢道場) in the practice community of White Lotus(白蓮結社)

Oh, ji-yeon
Lecturer of Dongguk University

There have been two famous and important Buddhist practice communities in Korean dynasties, one was the practice community of the Meditation and wisdom (定慧結社) by Ji-nul (知訥), the other was the practice community of White Lotus (白蓮結社) by Yo-sae (了世).

Even if the point of the former still exists through Koan meditation, the purpose of the latter which was the gathering of the repentance method of the Lotus Samādhi would be hard to find these days.

The epitaph of Yo-sae, the first president of the community of White Lotus, says: 'It was the first time to recommend dhyāna-contemplation (禪觀) and reciting sūtras (誦經) to the public through opening the practicing site of Samantabhadra since the introduction of Buddhism in Korea.'

In essence, the community of White Lotus was the meeting

to clarify and actualize the essential of the One Vehicle in Lotus sutra. Again in four aspects, the four ones [四一]: the first, to unite the three other teachings in one subtle dharma is called 'the teaching of one vehicle (教一)', the second, including many other practices like recitation or meditation are one and the same way to the ultimate enlightenment called 'the sole Buddha procedure (行一)', the third, the thinking that everybody regardless of sex, age or class is none other than Buddha is called 'men all and only as Buddha (人一)', the fourth, the understanding that Noumenon and phenomena are non-dual is called 'one ultimate truth of the reality of all existence (理一)'.

Key Words

The practice community of White Lotus (白蓮結社),
The practicing site of Samantabhadra (普賢道場),
The repentance method of the Lotus Samādhi (法華懺法),
Yo-sae (了世), Cheon-in (天因), Cheon-chaek (天頌),
dhyāna-contemplation (禪觀), reciting sūtras (誦經),
The One Vehicle (Ekayāna, 一佛乘), The four ones (四一)

✎ 투고일자 2012.11.12 | 심사일자 2012.12.5 | 게재확정일자 2012.12.13